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통정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사도 14,21ㄴ-27

화답송 | 145(144),8-9.10-11.12-13ㄴ(◎ 1 참조)



(후렴) 저의 입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 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 하나이다. ◎

제2독서 | 묵시 21,1-5ㄴ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3,31-33ㄴ.34-35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9 예물준비 220(215)
 영성체 178(176) 파견 24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송희종 요셉
- 이만제, 원광남
- 이한중, 이상민 카타리나
- 문종란 글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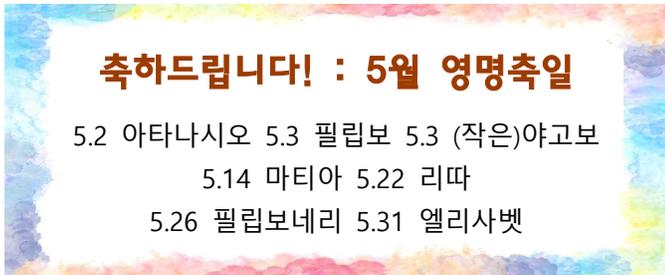
생미사 지향

- 이순자 로사
- 정은숙의 아이를 위해
- 김은영 베로니카, 이중선 폴리카르포
- 이에진 유스티나
- 성소후원회 회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김민경 소화데레사
- 이명주 플로라의 영육 건강을 위해
- 이미진 죠앤 그레이스 - 생일축하
- 이로잔 캐더린 영육 건강을 위해
- 이지연 안나레지나의 건강을 위해
- 이병국, 이지훈 아네스의 건강을 위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5월 18일	김유화	정은철	이경자	김미혜	이영혜	조성윤 이예진
5월 25일	정유진	민완준	민덕미	이경자	김영숙	한서희 조성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 Sr. 마리루시

5월 축일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첫영성체 & 견진성사

날짜: 5월 25일 주일(청소년주일) 미사 중

문의: 646. 832. 7397(Sr. 마리루시)

예수성가정회 회원 모집

대상: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

4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부

문의: 858.345.0307(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6월 바자회 특전 미사 & 기금 모금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집회 4.2)

바자회 취지: 아씨시 성프란치스코성당 ‘Breadline’
및 지역사회 후원

- 바자회 전날 준비팀을 위한 특전미사가 있습니다.

일시: 5월 31(토) 6PM. 장소: 소성전(아래 성당)

- 바자회 기부 희망하시는 분들은 산 다미아노 홀에서
담당자(표해심 카타리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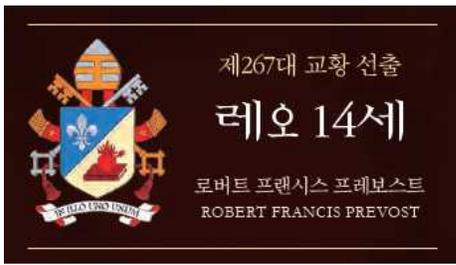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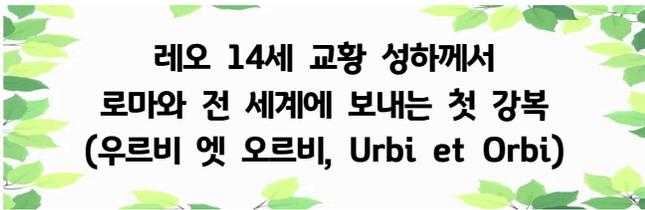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 1955년 9월 14일 미국 시카고 출생
- 1977년 9월 1일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련기 시작
- 1982년 6월 19일 로마에서 사제수품
- 1984년 교황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 교회법 석사
- 1987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지역 장상의 역할'로 박사 학위
- 1985년 페루 선교 시작
- 트루히요대교구에서 교회법학, 교부학, 윤리법학 교수 역임
- 2001년 2013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 2014년 12월 12일 페루 치클라요교구에서 주교품
- 2015년 9월 26일 페루 치클라요교구장 주교로 임명
- 2019년 교황청 성직자성 위원 임명
- 2020년 교황청 주교성 위원 임명
- 2023년 1월 30일 교황청 주교부 장관 겸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 위원장 임명
- 2023년 9월 30일 추기경 서임
- 2025년 5월 8일 제267대 교황 선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느님의 양 떼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주신 착한 목자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저 또한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와,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이, 모든 민족과 모든 땅에 닿기를 빕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는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신 하느님께서로부터 옵니다. 로마를 축복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냘프지만 언제나 담대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 귀에 머물러 있습니다!

로마를 축복하신 전임 교황님께서서는 주님 부활 대축일 아침에 세상을, 온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축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악은 결코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과 또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장서 가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인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이신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희를 도와, 그리고 서로서로 도와 대화와 만남으로 다리를 건설하고 모두 하나가 되어, 언제 나 평화를 누리는 한 백성이 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도록 저를 뽑아 주신 형제 추기경님 모두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가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사람들로써 언제나 노력하는 하나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아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사입니다. 성인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다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특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교회, 다리를 놓고 대화를 하는 교회, 이 드넓은 광장처럼 언제나 열려 있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현존, 대화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를 받아들이는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페루의 모든 이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치클라요교 구에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곳의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주교와 동행하고 믿음을 나누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로마와 이탈리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걸어 나가는 교회, 언제나 평화를 구하는 교회, 언제나 애덕을 추구하는 교회,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폼페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 곁에 계 시며, 당신의 전구와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온 교회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이 특별한 은총을 청합니다.